



## 엇갈린 지표, 단기 방향성 확인 필요

미국 12월 고용, ISM 서비스업  
지수 엇갈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엇갈린 경제지표로 장중 변동성 나타남. 고용 발표 이후 프리마켓에서 금리 상승, 주가 하락하다가 장초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이후 되돌림

ISM 서비스업은 고용, 신규주문  
중심으로 하락

미국 12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대비 2.1pt 하락한 50.6 기록 컨센서스(52.5) 하회. 세부항목 중 고용지수가 전월대비 7.4pt 하락한 43.3pt 기록. 보도 자료에서는 '대부분 원격 근무가 선호되어 숙련공 채용이 어렵고, 경제 불확실성과 고객 수요 감소 환경에서 기업들의 비용 감축 노력으로 지난 몇 달간 전문서비스업과 인력산업에서 해고가 증가했다'고 언급. 이외 헤드라인의 선행성을 갖는다고 보는 신규주문지수도 동반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수요에 대한 눈높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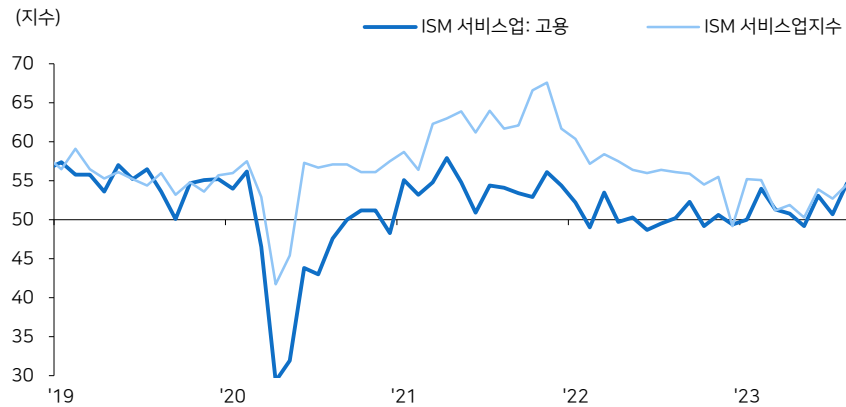
서비스업 세부 항목 외 다른 지표  
종합할 때 노동시장 둔화 추세  
지연 고려할 필요

12월 고용 동향과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 엇갈렸으나, 이 외 다른 지표를 참고할 때 1~2달 시계에서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둔화 추세 지연 고려할 필요. 1)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Job Posting Index 반등은 노동시장 초과수요 재확대 시사, 2) NFIB 서베이에서 임금 상승 확대 징후 포착(자세한 내용 1월 8일자 이승훈의 경제脈 참고)

앞서간 인하 기대 되돌리는  
구간 남았다는 판단

당사는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개시 전망 유지. 시장에 반영된 3월 금리인하 기대는 작년말 88.5%까지 반영, 1월 5일 기준 68.1%까지 축소(CME Fed Watch). 주식 시장은 앞서간 인하 기대를 되돌리는 구간 남아 있다는 판단

그림1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 상승 주가 하락, ISM 서비스업 발표 이후 되돌림



자료: US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